

# 예산안 막바지 심사...보훈처 예산 등 곳곳 암초

## 여 '박근혜예산 지키기'...야 '민생분야 증액'

### 국정원 개혁특위 활동과 연계 진통 불가피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 심사를 속속 마쳐감에 따라 이번 주부터는 예결위를 무대로 여야간 '예산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현재 전체 16개 상임위 가운데 운영·국방위 등 8개 상임위가 소관 예산안을 의결한데 이어 금주 중 나머지 상임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심사 과정에서는 여야간 충돌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조정소위는 지난 13일 대선 당시 여권 편향의 안보교육을 시행한 의혹이 제기된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놓고 충돌, 심사를 중단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조정소위는 일단 이날 오후 재개됐지만 또다시 파행 가능성은 남아있다. 민주당

이 이날 '박근혜표' 예산 삭감 방침을 유지하되 민생 관련 예산 증액 시도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예산안에서 민생지원·경기활성화·지방재정살리기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8조원 가량 증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무상보육예산 국고보조율 인상을 위해 6987억원 증액하고, 보육료 지원단가를 올리기 위해 관련 예산을 7170억원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지원 등에 3000억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교사 등 공공 서비스 부문 인력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에 1조원, 초·중학교 급식 50% 국고지원을 위해 1조5000억원의 예산을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회취약계층 지원 예산 복원과 확대에 1조5000억원의 예산을 늘리고, 경로당 난방비지원 등 노인복지 부문에 1600억원의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증액 대상에 ▲소상공인·지역업체 지원 1500억원 ▲사병 복지증진 1000억원 ▲농어민

지원 확대 3000억원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밝힌 세출 증액 총규모는 7조9257억원에 달한다.

반면,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이를 반영한 예산을 짰는데 야당은 '새마을'이나 '창조'라는 말만 들어가면 깎으려고 한다"면서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약을 지키라고 하면서 정작 관련 예산은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 국정원 개혁 특위 활동 '장성택 처형' 변수되나

## 여 '속도조절론' 제기여 야 '무책임한 태도' 반박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금주부터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국정원 개혁을 위한 입법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우선 특위는 16~17일 국정원 개혁 관련 공청회를 각각 개최한 뒤 18일부터 국정원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16일 공청회엔 뉴라이트 성향의 세성호 중앙대 교수, 이계고 변호사(여당 추천), 참여연대 출신인 장유식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광철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야간 입장차가 큰 데다 최근 북한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실각 및 처형 사태가 국정원 개혁의 변수로 부각된 상황에서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새누리당 내에서는 '장성택 사태'를 계기로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장성택 처형 등으로 북한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국정원 개혁에만 매몰되다가 대북 정보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이근현 위원장이 휴일인 15일 오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회의 개시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넘겨받아 삭감·증액 작업을 진행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예 계수조정소위)에서도 4곳에 대한 삭감안 심사를 마쳤다. 이번 주 중반에는 삭감 심사를 마무리하고 증액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도 예산안은 이른바 25일을 전후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나, 중요 예산을 놓고는 여야 의견이 대립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정원 개혁특위 활동과 예산이 연계될 가능성도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항목별로 창조경제,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을 포함한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야당이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기관 예산에 대

# 문재인, 대규모 북콘서트 '대선출정식' 방불

## '대선 회고록' 출간기념회 친노인사들 총집결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대선 회고록 '1219 끝이 시작이다'의 출간을 기념해 지난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가진 북콘서트에는 당 안팎의 '친노(친노우호계)' 인사들이 총집결해 대선출정식을 떠들썩하게 했다.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 노영민 박영선 홍영표 윤관석 진성준 의원 등 대선캠프에서 문 의원을 도운 의원들을 포함한 현역 의원 10여 명과 함께 변양근 전 기획예산처 장관,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등 참여정부 인사도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가 부족해 뜻을 이뤄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고 아쉽다"면서 "5년 뒤로 미뤄졌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2017년에는 미뤄진 열원을 반드시 이루도록 함께, 다시 또 시작하려는 마음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는 제가 피해왔던 일이고,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지만 이제는 더는 피할 수 없

는 저의 운명이고 남은 과제라고 여기고 있다"며 향후 대선행보에 적극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문 의원의 활동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평가와 달리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당내 외에 상당히 많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수도권외 한 의원은 "지금 상황적으로나 시기적으로도 (문 의원의 행보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으며, 전남의 한 의원은 "안 의원이 신당 창당 소식에 불안감을 느낀 것 같다"면서 "문 의원이 문재인 일으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한길 대표 등 상당수의 당 지도부가 전날 문 의원의 북콘서트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당내 불편한 기류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안철수 '신당 세일즈'...26일 광주서 설명회

## 지역 오피니언리더 상대 여론 수렴...대전·부산 등 순회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신당 알리기에 나선다. 오는 17일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번 순회 설명회는 지역의 오피니언리더들을 상대로 신당의 정치적 지향과 창당 방향 등을 설명하고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아가 전국투어를 통해 신당에 대한 이해와 지지기반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생각이다. 대전에 이어 19일 부산, 26일 광주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설명회에는 김효석·윤장현·박호근·이계안 공동위원장 4명과 안 의원이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토크쇼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집회 방식이 아닌 지역 언론인이나 여론 주도층을 상대로 한 간담회 형식으로 마련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그러나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여

국회 정보위원회

17일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과 국정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방안' 공청회엔 여당 추천으로 한희원 동국대 교수와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이, 야당 추천으로는 오동석 아주대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개혁특위는 공청회에 이어 18일부터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법안 심사는 지난 12일 남재준 국정원장으로 부터 보고받은 국정원의 자체개혁안과 공청회 내용, 각 당 내부에서 마련한 국정원 개혁안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정보위원장이 서상기 의원이 "국정원의 대북 휴민트, 인적정보망이 거의 말살되다시피 했는데 되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국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15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정원 선진화를 가로막는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히려 장성택 사건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국정원이 이 땀과 노력을 기울여야 대북 정보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지방세 작년보다 528억 줄었다"

## 이낙연 의원 자료 분석

부동산 경기 악화와 경제난 등으로 올해 들어 지난 10월말까지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8억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종합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말까지 지방세 수입은 모두 46조561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46조6144억원보다 528억원여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733억원 줄어 감소액이 가장 많았으며, 울산 775억원, 충남 775억원, 대전 676억원, 전남 231억원, 충북 63억원, 강원은 48억원이 각각 줄었다. 반면 세종은 953억원, 인천 844억원, 경남 798억원,

제주	763억원
대구	701억원
부산	576억원
경기	539억원
경북	381억원
광주	171억원
전북	45억원이
각각 늘었다.	

연간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액의 비율인 징도율은 경기, 부산, 경남,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이 의원은 지방세 수입 감소 원인에 대해 "취득세는 지방세의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부동산 경기 악화로 취득세가 줄었다"며 "이밖에 경제난으로 소득세가 줄어든 탓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 첨단 월계동 LCE타워 2층 상가 960㎡ 매 18억(분할 매매 및 임대 가능)(대형병원,학원,프렌차이즈 적합)
- \*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3천(보1억3천,월600만 포함)유형프랜차이즈 입점 중
- \* 서구 아파트상가 1,800㎡(점포 7칸) 매10억 (보 1억1천, 월610만, 용599천 포함)
- \* 사우나건물(8층) 17억4천(보8천,월800만 대출 9억 5천),직영 월천만수입
- \* 도천동 신축상고 대지2,500㎡,건평500㎡ 17억
- \* 벽진동 상고,고물상용지 2,900㎡ 임대 보2천/월200

**대지/전답**

- \* 상무지구 대지 405㎡(122평) 매 8억5천
- \* 용전동 전(자연녹지) 1,180㎡ 매5억3천
- \* 완도 약산 전(계획관리) 11,000㎡ 매 8억4천
- \* 장흥 용산면 전,임야 101,851㎡ 매 6억
- \* 남평 우산리 전(계획관리) 17,000㎡ 매 5억2천

**기타**

- \* 영암 삼호중공업인근 주유소 매 9억(대출 5억)
- \* 곡성 목사동 식당 1,750㎡ 매 3억9천(급매,조정가)
- \* 담양 월산면 가든식당 1,520㎡ 매 3억8천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화순읍 군청 민원실 인근 대로면 2층 주거지 492㎡(149) 은행2억 감정 3억6천에 매도, 조정가능
- 용산동 재개발지역 주택 대지 40평 은행 4천 매도 8200
- 담양군 창평면 창평리 대지 539㎡(163)8500만원
- 함평군 영암 칠동은 여관 대지 320평 건평211평 객실 21실 대출4억 교환도 가능 8억3천
- 담양군 대덕면 운림리 임야 71430평 평당 3천원 2억
- 광산구 신창동 6차선과 4차선 도로 코너 대지302평 건물은 4층 715평 사옥, 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적합 은행 18억2천 전세3억에 월 16000수익 증축도 가능 33억
- 조선대학교 앞 대로면 동명동 5층건물 대지318㎡(96)건평 736㎡(228) 상가와 주택 있고 원룸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 2천에 월 5000수익 매도 9억46천
- 담양과 순창간 모텔 땅 1745㎡(528)건물은 160평 객실18개 은행 3억7천 개발가능한 산과 교환도 가능 5억
- 그린벨트 담 담양군 창평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 차량 진입 원활 2425㎡(734)중시기에 매도 3860만원
- 나주시 봉황면 주택 대지 135평 주택 30평 6500만원
- 쌍촌동 원룸 건물 대지 169㎡(51)건평 278㎡(84)원룸 1개 스킨을 4개 보증금 1억원 월 110 매도 2억
- 대인동 4층 식당 대지 149평 건물 438평 은행6억5천 매도 8억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룸·투룸·스키를 92개 허가, 주택기금 12억가능, 투자에 적합 7억2천
- 임대·매매, 쌍촌동에 신축중인 가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입주는 1월 임대는 전세1000에 월 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판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 매수신장대리업체(법원인가) 근린시설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감정가4억
-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 2821㎡ 감정가46억 최저가26억
-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 2309㎡ 감정가33억 최저가17억

**단독주택**

- ▷ 북구 장동동 전원주택 대지1763㎡ 건평137㎡ 감정가1억8천만
- ▷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감정가1억7천만
- ▷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감정가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장및창고**

- ▷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가111억 최저가78억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17억
- ▷ 강진읍 송덕리 냉동,저온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27억

**토지매매**

-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담후 가격조정
- ▷ 무안군 해지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 ▷ 광산구 지평동 자연녹지 대지,전 2115㎡ 매매5천만(조정가)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공장 급매매**

**하남공단 9번로 인근 (천변 4거리 코너) 토지 3,305㎡ 건물 1,300㎡**

- 사무실1,2층
- 높이 : 8m
- 호이스트3톤 2대
- 전기 : 200kw

**물류창고 최적**

**매매가격 18억원**

**송학동 계획관리지역**

**잡종지(8,000㎡) 임야(7,000㎡)**

**매매가격 3억5천만**

**신진공인중개사**

010-2644-4265  
011-9602-6225